

작은 희생으로 서로 연대하는 마리아니스트 가족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잠시 활동을 멈춘 동안 지구는 오랜만에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고 멸종 위기 동물들도 생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녀 마리아가 하느님의 요청에 기꺼이 "네."(fiat)라고 응답하였듯이 우리도 지구의 신 음소리에 마리아처럼 "네."라고 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비로움과 따뜻함을 일찍이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지치고 좌절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굳건히 제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니스트로서 성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찾아, 어려운 이웃과 허물어져 가는 인류 공동의 집을 위하여 작은 희생으로 서로 연대하며 마리아의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김흥춘 사도 요한
서울 MLC

코로나19에도 성찰하며 실천해 나가는 서울 MLC 가족

세계는 지금 인간이 잘못으로 자연 재해와 기후변화,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숨 쉴 수조차 없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마리아니스트 가족으로서 마리아의 모성적 사랑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서울 MLC는 코로나19로 면대면 회의가 불가능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였고, 미사를 봉헌할 때에는 거리 두기를 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공동체 모임을 중단하였습니다만 몇몇 공동체는 화상으로 공동체 모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원들의 창조적인 제안을 듣고자 하여 7월 19일, 마리아니스트센터 기둥의 성모 성당에서 각 공동체 회장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온라인 독서모임인 <책방 마리서사(Maria書思)>를 마리아동산 카페에 개설하여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세계 마리아니스트 기도의 날에는 거리 두기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오롯이 모아 에콰도르의 엘 살토(El Salto) 성모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기둥의 성모 공동체 김명자 릿다 자매의 부군이 선종하여 마리아수도원이 이전 신축한 이래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마리아니스트센터 기둥의 성모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봉헌되었고, 라자로홀에서 봉안식을 가졌습니다.

김흥춘 사도 요한
서울 MLC